



2019

新年辭

다함께 잘사는 논산을 만들자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대 논산시의회는 살맛나는 논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과 통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 없이 달려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사람중심의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논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주신 황명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원을 아끼지 않고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논산 시민 모두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제8대 논산시의회는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도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의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적을 초월하여 '다함께 잘사는 논산을 만들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집행부와 협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내실 있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60년 주기로 찾아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행운과 재복,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황금 돼지의 기운을 받아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논산시 2019년 살림규모 7226억원 확정

논산시의 2019년 살림살이가 7226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예산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6846억원 보다 379억원(5.54%) 증가했으며, 회계별 예산액은 일반회계 6475억원과 특별회계 750억원이다.

시의회는 12월 24일 제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19년도 논산시 예산안에 대해 6억5천만원을 삭감한 7226억원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다.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2천10억원으

로 가장 많았고 농림해양수산 997억원, 환경보호 94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743억원, 수송 및 교통 397억원, 교육 117억원 등이다.

시의회는 지난 21일에는 3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249건의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진호 의장은 "26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합리적인 대안·따끔한 질책으로 바른 시정 견인

2018 nonsan city administrative staff inspection

논산시의회는 2018년 11월 27일~12월 3일까지 열린 논산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을 소개한다

지적 불부합 조속히 해결해야

박승용 의원



논산시 행정재산에 대한 지적 불부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산시의회 박승용 의원은 11월 30일 '2018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 감사에서 행정재산의 지적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목 조목 따져 물으며 집행부가 먼저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실한 수감자료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공문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박승용 의원은 "사업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이 이행으로 불용액이 발생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계천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논산시행정사무감사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대형 관정을 개발해도 물의 양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정 개발시 중형 등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관정을 개발하면서 개인땅이라는 이유로 사유화되거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 관정을 무분별하게 개발해 지하수 문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끼리 반목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서 사전에 주민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관정이 사유화 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강조했다.

각종 공연단체 관리 철저 주문

김남충 의원



김남충 논산시의원이 공연단체에 대한 시 예산 보조 기준이 무엇인가를 따져 묻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기준미달의 유명무실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산시의회 김남충 의원이 11월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공연 단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급적 일원화 하고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관내 모 시설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장기간 반납을 허용하는 것은 지나친 관용이 아닌가도 따져 물었다.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략 절실

김만중 의원



김만중 논산시의원이 11월 27일 열린 '2018행정사무감사' 전략기획실 소관업무 감사에서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정책)이 필요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1만2천가구에 이르는 논산시 농민을 위한 전략이 "다른 정책들 보다 비중 있게 수립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책에 비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만중 의원은 "논산시의 농업정책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고 동농 복합도시에 걸맞게 장기 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관정 개발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

이계천 의원



논산시의회 이계천 의원이 "시가 시행하는 대형 관정 개발이 경제성과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며 "관정 개발시 다각적인 방법으로 타당성을 검토해

문화사업 부실공사 사전예방책 세워야

조배식 의원



충남 논산시의회 조배식의원이 11월 28일 열린 '2018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에

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한옥마을 부실 공사에 대해 지적했다.

조백식 의원은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여러 곳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한옥마을의 준공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주문하며 “한옥마을과 연계한 기반시설 공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앞으로 논산시가 노성면 충정유교문화원 건립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백식 의원은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공사 감독에 임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 방안 강구

구본선 의원



논산시의회 구본선 의원이 “시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조하다”며 그간 “논산시에서 시장형 자체 사업의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구 의원은 11월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100세행복과 소관 감사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중 공익형 사업이 2017년과 2018년 변동이 없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았고, 시장형 일자리도 1명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며 “아파트 실버택배 사업과 전문직 어르신을 위한 노인회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구본선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문제 심각성 대비책 일환으로 활동하고 계신 독거노인돌봄센터 생활관리사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활관리사 분들이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휴게시설 마련 등 처우 개선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해소해야

서원 의원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이 11월 27일 열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에서 “국가정보통신망 3차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교환기가 1

년2개월간 행방불명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특정제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제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 의원은 28일 열린 관공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5년간 도민체전 단체복 및 신발 구입을 한 특정업체가 선정 되었다”며 입찰에 대한 의혹을 제기 했다.

서원 의원은 “도민체전 단체복, 신발 구입을 초등 학교 여자아이 브랜드 업체에서 구입했다”고 말하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명확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어떤 방식이든지 이의를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하천 물려주자

조용훈 의원



조용훈 논산시의원이 11월 30일 열린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강경천 유지관리 및 대흥천 정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조용훈 의원은 “금강하구둑을 개방하지 않으면 쓰레기 및 부유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하천관리를 풀각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하천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흥천 정비사업은 국비, 도비가 내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비 사업으로 오염되지 않은 대흥천을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며, 세척과 준설을 통해 쓰레기 부유물질을 심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용훈 의원은 “대흥천 사업비가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서류를 보니까 사업이 정지가 되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축산 악취 저감위한 대책 마련 시급

박영자 의원



논산시의회 박영자 의원이 29일 열린 논산시 축산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오폐수 문제와 악취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악

취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축사에 대한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박영자 의원은 “환경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살아남을 축사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논산축산업 진흥을 위해 서라도 어렵겠지만 집단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박영자 의원은 “악취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법 사항에 대한 행정제제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적극 조치를 당부했다.

폐교 활성화 적극적으로 나서야

최정숙 의원



최정숙 논산시의원이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에 있는 폐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주로 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폐교가 지역 내에서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최정숙 의원은 논산의 젓줄인 탐정호 환경관리가 관광개발의 제1번 과제라며 작은 것부터 소홀히 하지 말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감사관 운영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등 역량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소외계층 지원 확대해야

차경선 의원



논산시의회 차경선 의원이 논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확산 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긍정 반응을 얻어냈다.

차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법원에 입소되어 있는 생활인이 한층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경선 의원은 아직도 행정기관에 보행로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시설이 있다며 하루빨리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출장감사

현장에서 묻고·따지고·제안하다

12월 4일, 현장중심 의정활동... 집행부에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

논산시의회는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 오전 10시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8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및 읍·면·동에 대한 출장감사'를 실시했다.

현지확인은 논산시 가야곡면 '탐정호 예술체험마을 조성현장'과 '대교동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2곳에서 담당부서의 보고 청취와 질의를 통해 현장을 점검했다.

탐정호 예술인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관련 의원들은 진입통로가 매우 협소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빠른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거시적 안목으로 인접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현장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하며 최대한 사업에 반영해 줄 것



을 요구했다.

특히 하천인 만큼 집중호우 등 악천후에 대비한 철저한 공사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에는 감사1반(이계전, 박승용, 구본선, 박영자, 조배식, 차경선 의원)과 2반(김만중, 조용훈, 서원, 김남중, 최정숙 의원)으로 나누어 연무읍, 채운면, 부적면, 취암동에 대해 출장감사를 펼쳤다.

출장감사에 의원들은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램의 활성화와 수익계약 관리 철저 등 주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 강화를 주문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하고 읍·면·동 출장감사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은 향후 의정활동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논산시의회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즉각 철회 요구



논산시의회는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논산시의회는 11월 26일 오전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

문을 채택했다.

조배식 운영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퇴보적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안마다 빈번한 감사를 수감 중인 상황에서 충남도의회의 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결국 고스란히 220만 충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김진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12명은 판장일치로 뜻을 모아 충남도의회의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시민발언대

농업발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며



서웅대

한국발전농 충남도연합회 사무처장

논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까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12월 24일까지 하는 2019년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크셨습니까?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논산시의회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논산시의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일에 의회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이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건의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논산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로 논산 경제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딸기를 비롯해 논산평야에서 나는 알찬 곡식 쌀도 그러합니다.

귀농·귀촌을 하는 도시민이 논산에 와서도 시설재배인 딸기를 많이 선호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논산시 농업정책에 있어 농

업 생산액 1위인 딸기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은 자칫 부실한 농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닌지, 논산 딸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은 지 염려가 됩니다.

고루 발전하는 논산시, 더불어 잘 사는 논산시민이 되기 위해 의회에서 앞장서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공단 조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정작 논산시의 주인인 시민이 어려운 여건에 놓이거나 불행한 생활이 이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누구를 위한 논산시가 되겠습니까?

집안이 평안해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처럼 논산시민이 행복해야 논산 발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농복합도시답게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행복한 논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의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가가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이 발전하고 농민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논산 농업 발전과 논산 농민 행복이

논산시 일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일로 선진국 진입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도 함께 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논산이 되어야만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계각층 간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발전과 행복은 커녕 불화와 불행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논산시 곳곳에 이러한 병폐와 부실이 싹트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피는데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시민 간 갈등 해결에 있어 중립적 자세로 화합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해 존경받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충남에서 으뜸가는 지자체와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품도시 논산을 건설하는 과업에 논산시 의회가 앞장서는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논산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논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논산, 농민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논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장 황명선

자치와 분권을 말하다



되돌아본다. 2016년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열원은 이후 대통령 탄핵과 권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져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을 만들어 냈다. 당시 일부정치가, 학자, 외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동과 경제적 혼란을 예견하기도 했지만,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차분하게 새로운 민주주의시대를 의연하게 준비하며 각자 맡은 바 생업에 더욱 충실했고, 지역과 지방은 사회 및 행정서비스를 빈틈없고 차질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생각해 본다. 왜 국민들은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지역과 지방은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답은 가능하다. 바로 20년을 넘게 축적해 온 지방의 자치력(自治力) 즉, 지방자치의 힘인 것이다. 스스로 지역과 지방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간다는 지방자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에 대통령 탄핵과 권위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

마음이 희망이다. 논산시는 민선 6기부터 동고동락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동고동락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쉽터 정도로 이용하던 마을회관(경로당)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복합기능공간과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킨 공동체 복원사업이다. 동고동락 마을공동체사업은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 흠뻑 어르신 공동생활,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학교 외에도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마실음악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이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를 관계중심의 공동체복지 실천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논산의 마을공동체복원은 전국 대부분 지방 중소 도시들의 마을공동체들이 활력이 잃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지방자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정치 참여가 바로 ‘자치’고 ‘분권’이다. 동고동락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지방자치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마을자치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마을자치회는 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총회를 근간으로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동고동락 공동생활제·한글대학·건강증진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마을단위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 자치활동 실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선 7기에는 ‘자치가 밥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3월 대한민국 최초로 472개 마을에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중요한 일을 민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논산형 자치분권 시스템인 동고동락 마을 자치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논산 마을공동체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뜨겁다.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이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지방자치는 마을에서 완성한다. 더불어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논의와 방안들도 강구해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논산이 마을에서 희망을 찾고, 마을자치회에서 지방자치 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래서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의미로 다가선다.

250년 전 프랑스의 장 자크 루소가 말했다.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투표가 끝나자마자 다시 노예가 된다”고. 현대정치는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로 상징되니, 이런 현실을 뭐라 말하기도 딱하다.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로 마을에서 주인노릇을 해 보면 어떨까. 자치란 ‘스스로 다스린다’는 형식을 넘어 ‘스스로 이룬다’는 내용을 담아야 의미가 제대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스스로 이룬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는 본래 오래 전부터 스스로의 삶을 서로 기대어 성장하며 마을의 규약대로 잘 살아왔다. 하지만 본래 자치로 키워왔던 공동체의 자연력을 국가주도 성장 과정에서 모두 배제해 왔다. 그래서다. 복원이 필요하다. ‘스스로 이룬다’는 자치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自治分權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뺏어 오자는 것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이 참여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





가슴에 추억 한 자락! 변화하는 논산을 만나다

복합 문화공간 선사인랜드 하늘과 호수의 두 가지 얼굴 탐정호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는 한반도의 단전 부에 위치해 있는 논산시. 황산벌을 중심으로 한 백제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힘의 원천지이기도 하다. 백제 시대 충절을 상징하는 계백 장군부터 근대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강경까지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금강권 관광지로 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논산시의 떠오르는 관광지를 소개한다. 바로 다양한 체험과 관광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인 선사인랜드와 높은 하늘의 거울이 되어 하늘과 호수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탐정호이다.

드라마 속의 완벽한 재현 '그대를 기다리고 잇었소'

논산시의 선사인랜드는 많은 인기를 받으며 종영된 TV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 장소로 활용된 곳이다. 1900년대 배경 세트장은 실제 드라마 속에 들어온 것과 같은 생생함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논산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선사인 스튜디오는 1900년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물 촬영장으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충청권의 새로운 한류 관광지로 발전시켜 국내 시대물 제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저 눈으로만 보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방문객들이 직접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대를 기다리고 잇었소>라는 문구를 만날 수 있다.

지금 이 곳이 1910년대의 경성인지, 2020년을 앞둔 대한민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 시대를 안고 있는 건물들이 눈에 들어온다. 엔틱한 분위기와 인테리어로 아름다운 글로리 호텔, 드라마의 중요 장면의 배경이 되며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흥예교, 애국

도 매곡도 모두 기록한 김희성 신문사,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회사 한성전기, 여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마당집, PPL인 듯 아닌 듯 한 불란서 제빵, 한번쯤 웃고 지나갈 모든 것이 다 있는 전당포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1900년대 복식 체험과 촬영 소품 전시 등의 다양한 체험으로 <부디 안녕히 가시오>라는 배웅해주는 문구는 큰 아쉬움을 준다.

그렇다면 바로 옆,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영화세트장과 서바이벌 체험장, 밀리터리 체험관, 군 장비 전시 광장을 찾아보자.

논산시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선사인랜드는 시가지 전투체험장, 가상현실(VR) 체험관, 스크린사격장, 실내사격장, 다목적 경기장 등 군사병영문화를 한데 모아 논산하면 떠오르는 훈련소 브랜드를 한층 강화했다.

다이나믹한 전투액션과 군(軍)문화를 즐길 수 있는 레저공간에 한류 문화를 접목한 최신 밀리터리 체험관을 만날 수 있는 선사인 랜드는 새로운 체험형 관광명소로써 관광도시 메카의 행보를 보여준다.

도전과 모험, 즐거움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논산 선사인랜드. 과거로의 추억 여행과 역사의 현장의 체험, 최첨단 시스템이 주는 즐거움까지 다양하게 어우러진다. 사이버 논산 시민제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논산시민이 아니더라도 나의 또 다른 정겨운 고향을 만나보자.

600미터 동양 최대 출렁다리 2019년 완공

논산의 랜드마크인 탐정호에도 새로운 바람이 분다. 600m의 동양 최대 규모의 탐정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시작해 2019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논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소문으로 아름다운 도보길로 떠오른 탐정호 수변데크길에 이어 출렁다리까지 만들어진다면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탐정호의 수변경관 감상과 아찔한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해마다 논산을 찾는 연간 130만 이상의 훈련병과 가족들에게도 희소식이다. 문화와체육 콘텐츠를 접목한 농촌테마공원과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논산만의 문화가 어우러져 문화·관광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대둔산의 물줄기를 담아내며 맑은 물과 담수어종이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바다만큼 넓고 하늘만큼 깊은 호수는 유명하다. 천혜의 관광지로 이미 알려진 탐정호는 전국에서 7위, 충남에서 2위 규모로 수려한 풍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즐길 수 있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맛이 다른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는 풍경은 찾고 또 찾게 되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림 같은 풍경 호수를 따라 걸으며 해가 질 때에 수변데크길에 켜지는 은은한 조명은 아늑하다 못해 옛 추억에 빠져들게 한다. 호수에 비친 달빛에 취해 내 안의 모든 감성을 깨우며 100년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탐정호는 4개 면에 걸쳐 있어 찾아가는 길도 다양해 접근성이 용이하다. 지금은 탐정호를 일주하는 도로가 완공되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운이 좋은 날에는 호수 위로 피어 오르는 새벽 안개와 날아가는 철새의 콜라보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어 조용한 숙박 시설을 찾는 것도 좋겠다.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

논산시의회는 12월 21일 보훈명예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논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전몰·순직 유족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또 전상·공상 군경과 무공·특수입무 수행자 보훈명예수당도 신설돼 각각 월 5만원씩 지급된다.

논산시는 보훈처로부터 대상자를 파악한 후 보훈명

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안내서류를 보낼 예정이며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논산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독립유공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은 "논산시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수준 격차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애우 및 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일



논산시의회
NONSAN City Council

공명선거 캠페인

주요제한 금지사상 안내

사전선거운동제한

- ▶ 선거운동기간 전에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운동기간: 2019. 2. 28~2019. 3. 12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금지

- ▶ 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포함)을 매수하거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 ▶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선물·돈봉투·금품 등을 운반한 자도 처벌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호별 방문 등 제한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공표 금지

- ▶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등 비방 금지

-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